

‘같이 일 합니다’

경력변호사 인력시장 불붙었다

전담팀 운영하며 전사적으로 정보소집
시장 열리면 영입경쟁 더욱 치열 예상

한국 법률시장 개방의 원년인 2012년 초, 영, 미 로펌 관계자들이 서울사무소 개설을 위해 빠르게 움직이는 가운데 한국 로펌들 사이에선 치열한 인재 영입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뫼니니니 해도 로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사람만큼 중요한 요소가 없기 때문이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신입변호사 채용에서 시작해 판, 검사들 그만두고 제야로 진출하는 전관 출신 영입 경쟁으로 전개되던 종래의 패턴에서 달라진 게 있다면 올해 처음으로 배출되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선별, 특히 얼마 전부터는 이미 시장에서 위상이 검증된 기업전문 분야의 경력변호사 생달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어 로펌 인력시장의 달라진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손도일 팀 4명 영입

법무법인 충정에서 M&A와 외국인투자 등의 업무를 수행해 온 손도일 변호사는 지난 2월 중순부터 법무법인 윤춘으로 출근하고 있다. 윤춘이 손 변호사와 함께 충정의 같은 팀에서 일하던 외국변호

사와 다른 두 한국변호사 등 4명을 영입한 것이다. 손 변호사는 이와 관련, “해외투자 등의 분야가 활발한 윤춘에서 보다 능력을 발휘하고 싶었다”고 윤춘으로 옮긴 배경을 설명했다. 손 변호사 입장에선 좀 더 큰 조직으로 일하길



“ 김앤장 국제통, 태평양 소송, 중재
율촌, 광장 공정거래 전문가 스카웃 ”

윤춘으로선 그만큼 인력이 보강된 셈이다.
윤춘 외에도 김앤장 법률사무소,

광장, 태평양, 지평지성 등 로펌마다 우수 인재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전담팀을 운영하며 전사적

으로 스카웃 대상 변호사의 정보 수집에 나서는가 하면, 법정부나 협상장에서 마주앉은 상대방 변호사 중에도 특별한 사람이 있으면 ‘같이 일하자’고 손을 내밀 만큼 경력변호사 시장이 불분고 있다.

월 홍콩과 런던의 외국 로펌에서 14년 남게 활동해 온 허법 변호사를 영입했다. 최근까지 근무하던 곳은 영국 로펌인 Ashurst 홍콩사

이던 것이다.
국내 주요 로펌들의 경력변호사 영입은 물론 업무분야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개 주력 분야의 강와

최정현 변호사 광장행

지난 1월 동료변호사 3명과 함께 법무법인 광장으로 옮긴 엔터테인먼트 전문의 최정현 변호사는 “그만큼 로펌 간 경쟁이 치열해진 때문”이라며, “영, 미 로펌이 서울에 사무소를 열고 가세하게 되면 인력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주요 로펌의 홈페이지에서 구성원 안내를 검색해 보면 소속 변호사들의 면면이 워낙 빠른 속도로 바뀌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국내의 변호사를 가리지 않고, 소속 로펌에서 활약하던 중전 변호사의 이름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가 하면, 새로 이름을 올린 법률관계가 소개하는 변호사도 이어지고 있다.

태평양 소속으로 중국 상해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최원탁 변호사는 지난 2월 1일부터 서울의 김앤장 본사로 출근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국내 변호사 중에서도 손꼽히는 중국 전문가로, 특히 중국 진출 방안을 검토 중인 김앤장의 중국 업무 강화와 관련해 주력

14년 외계 근무

김앤장은 또 이에 앞서 지난해 9

“ 로펌뿐 아니라 변호사 개개인도 양극화
전문성 등 경쟁력 못 갖추면 발출 대상 ”

무소,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허 변호사는 금융전문가로, UBS 등 부자은행에서 신세 금융상품 등을 개발하는 실무자로 근무하기도 했다. 증권, 파생상품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허 변호사는 “홍콩 등에 있는 외국 금융회사들이 물어 오는 한 국법, 영자법 등에 관해 적극 자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김앤장은 영, 미 로펌의 진출을 앞두고 외국변호사 등 국제재정을 적극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영, 미 로펌으로 이직하는 외국변호사도 적지 않다. 김앤장 관계자가 확인했다. 지난해 만 해도 미 로펌인 존스 데이(Jones Day)의 한국담당 겸 아시아총괄을 맡아 파리사무소 옮긴 필립 리(Philippe Li) 프랑스 변호사 등 모두 5명의 외국변호사가 김앤장을 떠나 외국 로펌으로 이직했다. 한국 시장이 열리면서 김앤장 등 국내 로펌과 영, 미 로펌 사이에 한국계 외국변호사를 둘러싼 몸밀경쟁이 펼쳐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또는 부족한 부분의 보완인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해 말 소송, 중재 쪽 일을 많이 하는 지평지성 출신의 조병규 변호사를 영입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4월엔 홍성준 전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태평양으로 말을 갈아타는 등 1~2년 사이에 지평지성 출신 변호사 여러 명이 태평양으로 옮겼다.

해외전문가 영입 두드러져

지평지성은 또 지난해 11월 이근 등 변호사와 이훈 미국변호사 등 법무법인 서울에서 활약하던 M&A 등 회사법 분야의 변호사 5명이 한꺼번에 합류해 주목을 받았다. 다른 로펌으로 옮기는 변호사가 있는 반면 또 다른 변호사들이 지평지성을 찾아 입사하는 등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셈이다.

최근엔 태국 로펌인 WCP와 함께 발족에 코리안데스크를 개설하고 미국과 캄보디아에서 경력을 쌓은 정재형 변호사가 합류하고,

지난해 5월엔 현재 하노이사무소장으로 나가 있는 조원준 미국변호사를 영입하는 등 해외전문가 영입이 두드러진 게 특징이다.

올해엔 순도일 변호사님 외에도 화우의 공정거래팀에서 활약하던 박상범, 김창호 변호사가 2월 중순 합류했다. 또 MK&A 중 회사법 자문과 신영재 변호사가 3월 합류하기로 하는 등 경쟁거래와 회사법 분야에서 속속 중진이 이루어지고 있다. 신영재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합류한 같은 MK&A 전분의 신영수 변호사와 부부사이여서 더욱 화제를 낳고 있다.

핀 이매뉴얼 근무

광장도 지난해 초 새종에서 활약하던 경쟁거래 분야의 정현, 이민호, 박정민 변호사와 이경환 미국변호사가 한꺼번에 옮겨 와 이 분야가 대폭 강화됐다. 또 비슷한 시기에 지적재산권 전문의 도두형 변호사가 합류했으며, 지난해 10월엔 지적재산권 전문인 존 김(John Kim) 미국변호사를 영입했다.

김 변호사는 삼성의 미국내 특허 소송을 많이 대리하는 것으로 유명한 핀 이매뉴얼(Quinn Emanuel)의 파트너 변호사 출신으로, 지적재산권과 국제상무 등의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광장에 합류하기 전 삼성 전자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경력변호사에 대한 스카우트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로펌뿐만 아니라

변호사 개개인도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함께 고정 클라이언트 확보 등 경쟁력을 갖춘 변호사는 여러 로펌에서 서로 영입하려고 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변호사는 방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로펌의 한 변호사는 이와 관련, "전문성과 함께 네트워크 등을 구축해 말 그대로 그 분야의 최고가 되어야 한다"며, "로펌은 물론 개개인의 변호사들도 무관경쟁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통 최원탁 변호사 영입 김연장, 중국사무소 개설하 중국 경제 부상하며 관심 증폭

대륙아주의 상해사무소를 열며 9년간 중국에서 활동한 최원탁 변호사가 김연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하면서 김연장의 중국사무소 개설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상당한 규모의 중국법을 운영하며 다른 어느 로펌 못지않게 중국과 관련된 수많은 거래를 수행하는 김연장이지만 아직 중국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김연장의 해외사무소는 2010년 말 문을 열어 알렉스 양(Alex Yang) 미국변호사가 상주하고 있는 홍콩사무소가 유일하다.



"아무것도 결정된 것 없어"

물론 김연장은 중국사무소 개설과 관련,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쟁 로펌 특히 중국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태평양, 공강, 세츠, 지평지선, 율촌 등에선 김연장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연장이 중국이 미국과 함께 G2로 부상하는 등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더욱 중요해지면서 보다 적극적인 중국 업무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연장 관계자는 "중국 관련 업무 강화를 위해 북경이나 상해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방안을 오래전부터 검토해 온 것은 사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연장은 중국법 전문 변호사를 최정호, 주중한국대사관 법무협력관 출신의 김중국 변호사, 중국 변호법 전문인 박인수 변호사와 함께 중국 현지 로펌에서 근무한 경력의 조윤현, 이용수, 김희정, 전기용 변호사 등이 포진하고 있다. 또 최원탁 변호사 합류 전에도 중국의 King&Wood와 Richard Wang&CO에서 근무한 서성호 미국변호사, 한국외대 동법대학원 한중과를 나와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김수현 변호사, 중국 로펌인 중원 북경사무소에서 근무한 손금란 중국변호사를 영입하는 등 중국통 변호사들을 꾸준히 영입해 왔다.

이 사건 이 판결



- "LBO 방식으로 온세통신 인수한 유비스타 전 대표 배임죄 유죄"
- "사업자등록 명의변경 소송의 대상 아냐"
- "의약품 리베이트 손비 인정 불가"
-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 슈퍼마켓 판매 적법"
- 음료수 가격 담합 롯데칠성, 해태음료 벌금형
- 무자격 약국 직원이 의약품 조제...병원장에 벌금형
- "아구장 무단개조 LG스마트 부대시설 원상회복하라"
- '판·검사 로비 명목' 6억 행진 변호사 징역 2년 확정
- '만기일로부터 5년 지난 휴면예금에 법인세 부과 잘못'
- "이혼후 4년만 얼마에 양육권 합의 무효"
- 평소 주량의 다섯배 술 마신 강간미수범 심신미약 인정
- '사내 하도급도 2년 넘게 일하면 근로관계 성립'
- "만 15세 넘으면 선수 등록 불가" 대한체육회 규정 잘못"